



에콰도르

통신시장 성장세 당분간 지속될 듯

에콰도르 통신시장은 기초 통신인프라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 서비스의 급속한 확대에 힘입어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2002년 1월에 통신시장 개방화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그동안 미루어져 왔던 국영통신회사의 민영화 가능성이 높아졌고, 지난 2월 IMF 추가 금융지원협상 타결로 경제불안도 다소 진정됨에 따라, 향후 동국의 통신시장은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영통신공사 민영화가 유선통신 시장 발전에 중요한 관건

에콰도르 유선통신서비스 시장은 연간

12% 이상 성장세를 보이며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말 현재 동국의 유선전화 회선수는 전년에 비해 8.5% 증가한 145만 개를 기록하였고, 유선전화 보급률도 지난 1998년 7%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11.4%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동국의 유선통신서비스 시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¹⁾에 따른 신규투자의 감소, 통신부문 민영화 지연 등의 요인으로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다소 낮은 발전단계²⁾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에콰도르의 통신부문 투자액은 경기침체에 따른 통신수요 및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전년 대

- 1) 에콰도르 경제는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엘니뇨 현상, 환율 폭등, 국제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음. 지난 2001년 달러공용화 도입 이후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있으나, 재정수지 악화, 내수 및 수출 부진, 좌파 정권 등장 등으로 에콰도르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 2) 지난해 중남미 주요국의 유선전화 보급률을 살펴보면, 브라질 20.6%, 멕시코 16%, 칠레 25.9%, 아르헨티나 19.8%, 콜롬비아 17.5%, 베네수엘라 11.7% 등을 나타내고 있음.

비 15% 이상 감소한 1억 6,6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국영통신공사 민영화가 성사되지 못할 경우 통신부문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동국 정부는 국영통신공사 민영화³⁾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97년 동국 정부는 국영통신공사(Emetel)를 Andinatel과 Pacifictel로 분리한 후 2차에 걸쳐 35%의 정부지분 매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익집단간의 갈등, 정부의 높은 제시가격(minimum asking price), 경쟁의 투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외국계 통신회사들이 입찰마감 직전 신청을 철회함으로써 결국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노보아 前대통령은 임기 중 민영화법(The Privatization Law)을 개정하여 외국기업의 지분취득 허용 범위를 51%로 확대하였고, 지난 2001년부터 민영화 방식을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지분 매각 방식에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자본화(capitalization)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지난해에는 Andinatel, Pacifictel 등 국영 통신회사들에게 부여된 해당 지역의 유선회선 증설, 국내 장거리 전화, 부가서비스 사용 등에 대한 독점사업권을 폐지하는 등 통신시장을 완전 개방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최근 동국의 유선통신부문 민영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타결된 IMF와의 추가금융지원 협상에서

IMF와 정부 양측이 유선통신 인프라 확대 및 재정난 해소를 위해 국영통신공사의 민영화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Andinatel, Pacifictel 등 국영통신공사 민영화는 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이 성장 주도

유선통신서비스 시장과는 달리, 동국의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은 비교적 일찍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여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에콰도르 무선통신 가입자수는 전년 대비 85% 이상 증가한 156만 명을 기록하여 보급률이 12.5%를 상회하였고, 이로 인해 지난 2001년 말 무선통신 보급률이 유선통신 보급률을 초과하는 유·무선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무선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사용 지역이 확대되면서 무선통신 부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World Market Research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 2.5억~3억 달러, 연간 5,000만 달러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에콰도르 무선통신 시장은 미국계 Bell South Ecuador(이전 Otecel)과 멕시코계 America Movil이 대주주인 Conecel(Porta) 등 2개의 사업자만 존재하였다. 그러나 금년 3월 Andinatel과 Pacifictel의 consortium, Tele-sca가 3번째 무선통신 사업자로 선정되고 이에 대한 경영을 스웨덴의 Swedtel

3) 중남미 각국의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으로 중남미 통신부문 민영화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74%를 보이고 있음. 또한 중남미는 국영통신회사 민영화를 통해 400억 달러 이상의 민영화 수입을 거둬들였으며, 다국적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사업권 양도를 통해 1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에콰도르 통신 인프라 현황

	1998	1999	2000	2001	2002 ^e	2003 ^f	2004 ^f
총 유선전화 회선수(천)	877	906	1,207	1,336	1,450	1,653	1,770
유선전화 회선수(100명당)	7	7	10	10	11.4	13	14
총 무선통신 가입자수(천)	276	344	480	859	1,560	1,759	2,058
무선통신 가입자수(100명당)	2.3	2.8	3.8	6.7	12.5	13.9	16.0
통신부문 지출액(백만 달러)	79	45	211	195	166	153	150

자료 : EIU.

이 말게 되면서, 향후 동국의 무선통신 시장은 서비스품질 개선 및 가격 인하에 따른 가입자수의 증대, 신규투자의 증가 등으로 더욱 역동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기업의 진출과 더불어 기술적인 발전과 선불제도의 도입 역시 동국의 무선통신 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에콰도르 무선통신 사업자들은 아날로그(AMPS) 방식에서 TDMA로 사용방식을 변경하여 통화품질 개선은 물론 발신자표시 서비스, 문자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SMS)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는 제3세대 CDMA 2000 방식 도입⁴⁾을 위해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또한 무선전화 가입 시 월정요금제를 선택하지 않고 수퍼마켓, 약국 등에서 카드를 구입하여 충전식으로 사용하는 선불카드제를 도입⁵⁾함으로써 가입자 계층이 저소득층에까지 확대되었다.

향후 전망

에콰도르 통신시장은 유선부문의 민영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무선통신 시장에서는 가입자수의 확대, 외국계 기업들의 진출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아날로그에서 TDMA로의 변경 등 각종 서비스 방식 변경으로 통신장비 시장도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02년 7월 무선가입자회선(Wireless Local Loop) 사업권을 TV Cable과 Ecuador Telecom에 부여함으로써 유무선 서비스가 어려운 지역에 통신 서비스가 가능케 됨에 따라, 유선통신 인프라 부족 현상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신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신 시장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심하고, 최근 무선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경제 전망 및 정부 투명성에 있어 외국계 기업들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⁶⁾에 따라, 동국 통신 시장 발전에 중요한 관건이 될 민영화 성사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최 성 규】

4) Bellsouth Ecuador는 지난 2002년 7월 CDMA 2000 1X 기술 도입을 위해 캐나다의 Nortel Network社와 1,7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5) 지난 2002년 말 현재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중 88%가 후불제가 아닌 선불카드 요금제를 선택하였음.

6) 지난 3월 결정된 무선사업자 입찰 경쟁에서 Andinatel과 Pacifictel만이 입찰에 참여하였고, 지난 2002년 7월 3개의 밴드에 사업권을 부여할 무선가입자회선(WLL) 사업자 선정에서도 2개 기업만이 정부의 제시가격 이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음.

